

Date: 13 Elul 5786 (August 26, 2026)

Torah Portion: Ki Tavo

Topic: 신성한 도움과 자유 의지, 제 2 부

두브노의 마기드(Dubno Maggid)는 이 이해의 원리를 더욱 발전시킵니다. 사람이 하늘로부터 지정된 이고심 가운데 도움을 받아, 자신의 힘만으로는 도달하기 어려웠을 영적 성장의 단계에 이르게 되더라도, 그 성취에 대한 공로는 여전히 그 사람의 몫으로 인정됩니다. 비록 신성한 도움이 그 사람의 성공에 기여했을지라도, 그 사람 자신이 의로움을 갈망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았으며, 여호와와 도움을 구하기로 선택했기에 돕는 자를 연결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간절함이 그 도움을 이끌어 냈음으로, 그 결과로 이루어진 선한 행위들은 여전히 그 사람의 업적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상반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그것은 인간 노력의 일부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여호와께 힘을 구하는 것 자체가 영적인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모세 알시흐(Moshe Alshich) 랍비는 미드라시를 다소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요청할 수 있었던 확신은 일반적으로 신성하고 평준화된 도움보다 더 큰 차원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이 이미 도달한 영적 수준을 보존해 주실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하늘에 대한 경외감'은 오직 인간의 "선택 영역에 남아 있다"는 원리와 이 개념을 조화시키기 위해, 알시흐는 영적성장의 단계를 구분합니다. 자신의 달란트를 통하여 세울 수 있는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 여전히 노력하는 이들에게, 여호와께서는 그의 거룩하신 영으로 도움을 보내 주시돼, 각각의 물리적 감성적 지적 영적 세계를 확대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하여 부단히 수고하는 "땀의 노력"을 대신해 주시지는 않으십니다. 이 부분은 우리의 몫으로 남겨 두신 것입니다. 빛의 공급은 땀 흘림의 수고에 대한 결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영적원리의 지적 인식은 "그분께서 자신의 경건한 자들의 발을 지키시리라" (사무엘상 2:9)는 말씀에 근거합니다. 탈무드(요마 38b)에 따르면, 여호와께서는 신실한 자들이 땀으로 갈고 닦은 영적 성취를 잃지 않도록 보호하십니다. 이 핵심적 뜻은 여호와께서 각 사람이 그 선택을 통해 흘린 수고로 의의 완성을 획득해야 되는 필요성을 없애신다는 것이 아니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후에 한 사람이 수고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얻은 수고의 결실을 여호와께서 보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시나이산에서의 이스라엘과 관련하여 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가 행하고 따르겠나이다"라는 선언은 여호와께 자신들을 복종시키려는 비장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택하신 처소에서 이스라엘 네뱌쉬에게 명령하신 모든 계명들을 여호와를 가장 행복하실 만큼 성심으로 잘 지키겠다고 스스로 맹세한 의지력이 펼쳐지는 이 땅의 삶 가운데 '영원히 보존해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할 수 있는 영적 경지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미드라시에 따르면, 여호와께서 "누가 이 마음이 그들에게 계속 머물 것이라고 보장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러한 "간구" 올릴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열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침묵했습니다. 그들은 시내산에서 헌신된 뜻을 선포 하는 법도를 배웠지만, 여호와께 그 헌신된 의지를 보존해 달라고 간구하는 법을 그때까지는 배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는 신명기 29 장 3 절에 나오는 모세의 말로 우리를 다시 이끕니다. "여호와께서 오늘날까지 너희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은 40 년 동안 토라를 걸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와

기적을 목격했고, 만나를 먹었으며, 광야에서 공급된 물을 마셨고, 야훼의 끊임없는 보호 아래 살았습니다. 그들의 옷은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은 발에서 닳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와 역사를 육신과 감정으로 경험하는 것이 반드시 그것을 두뇌의 장성한 지각의 영으로 이해하는 것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수년 동안 신성한 축복 속에서 살다가, 그 감격적인 체험과 은총의 동행을 어느 사이에 당연한 것으로 곧 늘 있는 평범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때 감격적인 특혜로 감사히 인식되던 것이, 점차 당연히 늘 있을 것이 되는 것으로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모세가 "깨닫는 마음"을 40 년의 광야 경험과 연결 지은 이유일 것입니다. 지난 시간의 전체 여정을 다시금 신중히 되돌아 본 후에 비로소 이스라엘은 순종의 삶과 그 안에 담긴 지적이고 영적인 패턴을 인식하기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헤어지지 않은 의복, 닳지 않은 신발, 매일 아침 어김없이 그들의 목전에 나타나 대기하고 있던 "만나", 그리고 그들과 함께했던 "신성한 동행과 보호하심"은 이 모든 것은 단지 개별적인 기적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합쳐져 여호와를 의지하는 법도를 배우는 40 년 가운데 "삶"이라는 진리의 가르침을 이루었습니다. 광야가 곧, 그들의 스승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닫는 마음'은 단순히 여호와께서 무엇을 명령하셨는지 아는 것 이상의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행해 오신 일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기르는 것을 뜻합니다. 토라의 기록은 사람이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지만, "알게 하는 마음"은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자신을 지탱해 주시는 거룩하신 분을 그 한 분이신 여호와를 알아 볼수있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았지만, 여호와께 얼마나 깊이 의존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하기까지는 40 년이라는 세월 동안 경험과 실패, 교정, 공급, 그리고 자비를 겪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자유 의지와 신성한 여호와 이스라엘의 엘로힘(권능;하나님)의 도움 사이의 외면적으로 보여지는 충돌은 사라집니다. 인간은 자신이 걸어갈 방향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들은 의로움을 갈망하고, 첫걸음을 내디디며, 여호와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일단 그 선택을 하고 나면, 그들은 계속 나아갈 힘을 여호와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도움은 인간의 자유를 반드시 감소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유의지로서 옛 길 선택한 여호와의 길을 선택하고, 거룩하신 전능자께서는 그 길을 걸어갈 힘을 즉각적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실패는 신적 도움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도움은 늘 열려 있었고 언제라도 주어질 수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구해야 할 필요성을 깨닫지 못했고 구하지 않아서 였습니다. 시내산에서의 그들의 침묵은 광야에서의 40 년 세월이 마침내 가르쳐 줄 교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영적 성숙이란 더 이상 여호와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매 호흡 매일을 지나며 우리가 얼마나 더 절실히 여호와의 성호를 부르짖으며 간구하고, 기뻐 감사로 송축 드리는 말과 손발의 행위가 필요한지를 마침내 깨닫는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것이 바로 모세께서 선포하신 "깨달아 알게 하는 마음"의 뜻일 것입니다. 성숙한 마음은 사람의 순종해야하는 "책임"과 여호와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의존성" 양면 모두를 이해합니다. 그것은 인내하는 데 샤마임(하늘)위로부터의 도움이 필요함을 인정하면서도,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여호와의 소리에 순종하기를 선택합니다. 여호와의 토라를 부지런히 정검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며, 토라에 대한 두뇌에 암기 된

지식을 “여호와를 안다”는 완전한 삶(물리적-감성적-지적-영적)지식과 혼동하지 않습니다. 또한 어제의 내 생각-말-행위의 신실함이 내일에 있어서 동일한 신실함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지금까지 이해하는 참 지식의 영으로 부어주신 삶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여호와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이 주는 교훈은 단순히 이스라엘에게 더 많은 지식이 필요했다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비나(통찰력)의 영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40 년이 지난 후, 그들은 마침내 뒤를 돌아보며 여호와께서 그 모든 걸음마다 자신들을 지탱해 오셨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참으로 아는 마음은 “나는 내 힘만으로도 신실함을 지킬 만큼 강해졌다”라고 말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의 길을 기꺼이 선택한 뒤, “여호와여, 여호와의 도, 옛 길 선한 그 길이 오직 제가 바라는 길입니다. 제가 이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라고 말할 줄 아는 지혜를 지닌 마음입니다.

shalom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약.2:22

“그 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의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니라.” -마.25:1-6

“그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말. 3:16Shalom.